

“V13 염원 담아 챔피언드를 달귀라”...‘다시, 뜨겁게’

KIA, 3-5일 홈 개막 시리즈 'V13urn Again' 테마역대급 이벤트

나성범·이의리 팬사인회부터 뒤푼이 응원전까지 이벤트 다채 승리 기원카드섹션 응원, 배우람·이제훈·김아랑·김의성 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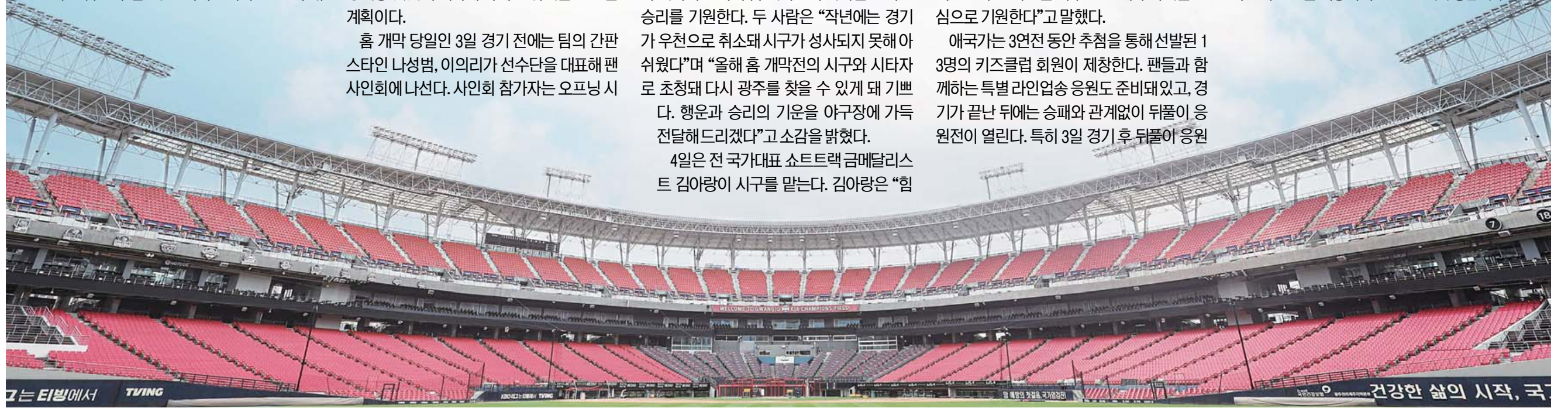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광주에서 시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2026시즌 첫 홈 개막 3연전을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준비했다. KIA는 오는 3-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2026 시즌 홈 오픈 시리즈를 ‘V13urn Again’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한다. 31일 밝혔다. 이번 ‘V13urn Again’ 테마는 13번째 우승에 대한 염원과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뜨겁게’를 조화한 명칭이다. 팬과 선수단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자는 의미를 담았다. 홈 개막을 기념해 챔피언스 필드 안팎이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진다. 먼저 선수단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조화한 자이언트 폴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마련한다. 또한 12개의 역대 우승 엠블럼이 새겨진 만국기와 가로등 배너를 경기장 곳곳에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홈 개막 당일인 3일 경기 전에는 팀의 간판 스타인 나성범, 이의리가 선수단을 대표해 팬사인회에 나선다. 사인회 참가자는 오프닝 시

리드 티켓을 예매한 팬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집한다. 축하 기념 공연도 마련된다. 25인조 마칭밴드 ‘크라운’이 응원가 메들리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밴드 ‘타치드’가 대표곡인 ‘Highlight’와 ‘Stand Up!’을 열창하며 그라운드에 승리의 기운을 수놓을 예정이다. 선수단 입장 방식도 특별하다. 기아의 EV 라인 차량 13대에 선수단이 탑승해 그라운드에 입장하며 팬들을 맞이한다.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행사도 열린다. 이번 시리즈의 시구는 각자의 분야에서 뜨겁게 활약한 타이거즈 썬팬을 초대한다. 첫날에는 배우 배우람, 이제훈이 각각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홈 개막전의 시작을 알리고 승리를 기원한다. 두 사람은 “작년에는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시구가 성사되지 못해서 아쉬웠다”며 “올해 홈 개막전의 시구와 시타자로 초정돼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 행운과 승리의 기운을 야구장에 가득 전달해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일은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이 시구를 맡는다. 김아랑은 “힘

찬 시구로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열띤 응원으로 팬들과 함께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고 전했다. 마지막 날 5일엔 배우 김의성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는 “40여 년 타이거즈 팬으로서 드디어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서 득점만 같고 크나큰 영광”이라며 “선수단과 팬 모두가 하나로 뭉쳐 V13의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애국가와 3연전 동안 추첨을 통해 선발된 13명의 키즈클럽 회원이 제창한다.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 라인업 송 응원도 준비되었고, 경기 끝난 뒤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뒤푼이 응원이 열린다. 특히 3일 경기 후 뒤푼이 응원



KIA 타이거즈 홈 개막 시리즈 시구자. 왼쪽부터 배우람, 이제훈, 김아랑, 김의성 (KIA 타이거즈 제공)



경기장 좌석 모습. 건강한 삶의 시작, 국

김효주, LPGA 3연승 도전...박인비 이후 13년만

3일 개막 아람코 챔피언십 출격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효주가 한국 선수로는 13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연승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 골프코스(파72·6천765야드)에서 열리는 아람코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 출전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김효주는 최근 신들린 듯한 경기력으로 2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연속 들어 올렸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포티퍼 파운

더스컵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벨리코르다(미국)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승이자 투어 통산 8승째를 거두고, 27-30일 펼쳐진 포드 챔피언십에선 최종 합계 28언더파 260타를 기록하면서 역시 코르다를 두 타 차로 꺾고 연속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가 아람코 챔피언십마저 제패하면, 한국 선수로는 2013년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LPGA 투어 3연속 대회 우승을 달성한다. 박인비는 2013년 6월 웨그먼스 챔피언십과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US여자오픈에서 3개 대회 연속 1위에 오르며 대기록을 세웠다.

김효주는 시즌 3승 고지에도 도전한다. 한국 선수가 한 시즌에 3승 이상을 거둔 것은 2021년 고진영(5승)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엔 다승자가 나오지 않았고, 2023년엔 고진영이 2승을 올렸다. 2024년과 2025년엔 시즌 2승 이상을 거둔 한국 선수가 없었다. 또 김효주는 역대 한국 선수 6번째로 통산 10승을 넘는다. LPGA 투어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둔 한국 선수는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 고진영(15승), 김세연(13승), 신지애(11승) 5명뿐이다. /연합뉴스

2026 동계패럴림픽에서 전남 빛낸 휠체어컬링 방민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지정 기탁금 전달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76차 이사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전남을 빛낸 휠체어컬링 방민자(혼성 4인조 세계랭킹 5위)를 격려하고 소속팀 한전 KDN의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 (사진) 방민자를 주축으로 한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팀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4위를 기록했다. 방민자는 “전남에는 아직 컬링 전용경기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남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7년 전국장애인동계체전과 컬링 리그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기업의 따뜻한 후원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왼쪽)과 양경홍 제주we호텔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체육행사 운영 지원 최적화·스포츠 관광 선도 모델 구축

전남도체육회·제주 WE호텔 ‘맞손’

전남도체육회가 제주 WE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육·관광 연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제주WE호텔에서 제주 WE호텔과 체육행사 운영 지원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연수, 워크숍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체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체육행사 참가자 대상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 합리적인 이용 여건 조성 서비스 우대, 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왼쪽)과 양경홍 제주we호텔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은 체육과 관광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과 체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제26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오는 4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건강 도시’ 광주, 걷기의 행동화-습관화-일상화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이자 질환 예방과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감소 등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인 운동이다. ‘건강 도시’ 광주 시민으로서 걷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동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걷기 행동화(Action), 걷기 습관화(Routine), 걷기 일상화(Daily life)의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걷기 행동화 전략은 주 5일 이상 매일 30-40분씩 이상 규칙적 걷기이다. 특정 시간에 몰아서 걷기보다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점이 중요하며, 시속 4.8km~5.6km 정도로 약간 빠르게 걸으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평소 걷기를 어느 정도로 실천하고 있을까?

2025년 12월, 질병관리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의 25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주요 결과 중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총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인 걷기 실천율을 살펴보자. 걷기 실천율은 2020년 37.4%, 2022년 47.1%, 2024년 49.7%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5년 49.2%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 폭에 안심하거나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2008년에 처음 진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걷기 실천율이 50.8%임을 고려했을 때 걷기 행동화는 제자리를 걷는 중이다. 결국 걷기 행동화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실천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걷기의 행동화-습관화-일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적 실천을 선행해야 한다. 당장 밖으로 나가 걷기 좋은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급한 일은 제외하고 가까운

행정동과 행정동 간의 이동 수단으로써 걷기를 선택하는 결심부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의 걷기 실천은 곧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과 건강, 행복이 모여 지역사회가 대자본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일상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이 달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첫걸음을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26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오는 4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자 첫걸음으로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걷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용은(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광주시 걷기협회 이사)

